



공정 보도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00-210) 서울 중구 수하동 67
 ☎ 398-3620~2 FAX 398-3630
발행인: 공병설
공보위원장: 고희규

<http://www.newsunion.co.kr>

노사 편집위, SNS 공간상 기사 논란 논의

제3기 노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는 7월 21일 제5차 회의를 열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 연합뉴스 기사가 논란이 되고, 기사가 공격 대상이 됐을 경우 바람직한 회사의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노측은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희망의 버스' 집회를 다룬 연합뉴스 기사가 트위터 공간에서 큰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측은 기사가 한쪽의 입장만 부각했다는 지적에서 시작된 트위터상의 논란이 기사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번진 데 이어 매체 전반에 대한 신뢰성 비판으로까지 나아갔지만 회사의 공식 해명이 없었고, 기사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논란이 된 기사는 현장에서 희망버스 찬반 양쪽을 두루 확인하며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쓴 것인데 통신 기사 속성상 다른 기사보다 먼저 나가다 보니 비판의 표적이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트위터에 올라온 상황과 현장에서 취재하며 접하는 진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측은 회사도 트위터 공간의 논란으로부터 기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대처법을 고민했지만 맞대응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측은 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력과 인사 문제를 비판한 기사가 지연 송고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해당 발언이 홍준표 대표가 평소에도 잘하던 말이라서 기사 가치가 없다는 현장 기자의 판단 착오로 지연 송고됐을 뿐 누구를 봐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측은 아울러 통합브라우저상에서 기사 제목을 달 때 글자 수가 한도를 넘으면 송고가 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했다.

노측은 이 밖에 편집위에서 논의된 사안이 일선 부장이나 데스크에게도 잘 전파되도록 해 줄 것을 사측에 요청했다.

회의에는 노측에서 공정보도위원회 고희규 간사, 류지복 부간사, 현운경 총무, 김성진 기획지회장, 정성호 노조 사무국장이, 사측에서 김성수 편집상무, 이래운 편집국장, 장윤주 국제국장, 김용수 지방국장, 이선근 통합뉴스국장 이 참석했다. 채삼석 기사심의실장은 읍서버로 함께했다.

◇ 한진중공업 사태 관련

■ 노측=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희망버스를 다룬 연합뉴스 기사가 트위터 공간에서 큰 논란이 됐다. 기사가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한쪽 입장만 부각했다는 지적에서 시작된 논란은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번진 데 이어 매체 전반에 대한 신뢰성 비판으로까지 나아갔다.

처음 트위터상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팩트 확인이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한진중공업에 진입하려 했다는 기사 내용과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쇠파이프와 각목 등이 발견됐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구하다 회사의 무대응이 계속되자 인신공격, 신상털기에 이어 매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 사측= 한진중공업 사태는 사회적 사안으로 자기검열이나 오해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본다.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것도 아니고 현장 기사가 의도적인 시각을 갖고 쓴 것도 아니다. 현장 기사가 취재한 대로 기사를 올리면, 본부장이 판단해 팩트가 정확하면 균형이 맞춰졌는지와 상관없이 내보내는 것이다.

희망버스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기사에 대해 섭섭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사를 쓴 기자는 현장에서 희망버스 찬반 양쪽을 다 확인하면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썼다고 본다. 통신기사 속성상 다른 기사보다 먼저 나가니까 표적이 되기 쉽다. 트위터에 올라온 상황과 현장에서 취재하며 접하는 진실과는 다를 수 있다.

■ 노측= 이처럼 SNS 공간에서 개인이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됐을 때 회사의 대응 방향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연 방치하는 게 맞는지, 해명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번과 같은 경우 회사에서 트위터를 이용해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기자 보호와 회사의 신뢰성 제고에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되돌아보면 좋겠다.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불러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앞으로 계속 트위터상에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트위터는 이제 어느 매체보다 강력한 매체로 자리 잡았다. 여론 주도층을 상대로 세포 분열 하듯 퍼져 나간다. 트위터상에서 대중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 공격 대상이 된 기자에게 계속 관련 기사를 쓰게 하는 것도 개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 아닐지도 생각해 봤으면 한다.

■ 사측= 이번에 논란의 대상이 된 기자가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사실 회사에서도 대처법을 고민했는데 과연 맞대응이 효과적인 것이냐는 의문이 있었다.

트위터라는 매체가 웬만한 신문보다 영향력이 커졌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트위터는 사적 영역이고, 우리는 공적 영역인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다. 정색을 하고 맞대응을 하면 도리어 일만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번 경우는 SNS 공간에서 기사에 대한 항의, 요구 등 일종의 민원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계속 무시·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논란이 우리의 브랜드, 신뢰도와도 연관되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 회사도 기사를 보호하는 문제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텐데 방송국 홍보실처럼 회사 내에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사를 교체하지 않은 것은 해당 기자가 그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데다 본인이 '참고 견디겠다'고 한 부분도 고려됐다. 출입기자를 바꿀 경우 우리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면도 감안했다. ■

이달의 참글상

6월 이달의 참글상 선정작 없어

6월에는 '이달의 참글상' 수상작이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회의를 열어 '이달의 참글상'(6월 송고분) 선정에 대해 논의했다.

6월 이달의 참글상 후보로는 '한국 자본시장 공정거래 실종...개미들 피해 속출'의 1건(증권팀)과 '〈너도나도 1등급 한우〉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손상원 조합원) 등 2건이 추천됐으나 두 후보작 모두 수상을 위한 표를 획득하지 못했다.

공보위원 18명 가운데 1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두 후보작이 각각 3표씩 얻었다.

규정에 따르면 이달의 참글상에 선정하려면 공보위원 과반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두 후보작 모두 사회적 경각심과 파장을 일으켰다는 점은 높게 평가됐지만 참글상의 3대 취지인 사회갈등 통합, 자본·정치 권력 감시, 소외계층 보호와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공보위는 참글상 수상작이 되려면 이 3대 취지가 우선 충족돼야 하고 전제 실적이나 사회적인 반향은 상격을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고 뜻을 모았다. ■